



NAKS

제1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수상작품집





NAKS

www.naks.org

제1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 수상작품집



CONTENTS

축사

이승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04
김대영	이순신미주교육본부 부이사장	06
이문형	심사위원장	08

전체

최우수상	최하영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12학년	미시간지역협의회	12
------	-----	-----------------	----------	----

명량

금상	주하늘	열린문 한국학교 10학년	워싱턴지역협의회	14
은상	이새해	애틀랜타 한국학교 9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19
은상	이세현	탬파통합 한국학교 9학년	플로리다지역협의회	23
동상	이스텔라	지혜 한국학교 9학년	워싱턴지역협의회	27
동상	박지연	사랑 한국학교 9학년	동북부지역협의회	30
동상	진용준	넛가에 심은 나무 한국학교 10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35

한산

금상	임단아	새하늘 한국학교 5학년	북가주지역협의회	38
은상	조아라	임마누엘 한국학교 7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41
은상	주민영	열린문 한국학교 8학년	워싱턴지역협의회	44
동상	권민호	다솜 한국학교 7학년	북가주지역협의회	48
동상	이루리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 8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52
동상	주민하	열린문 한국학교 8학년	워싱턴지역지역협의회	54

옥포

금상	유하늘	애틀랜타 한국학교 4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58
은상	김세현	델라웨어 한국학교 4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60
은상	이마리벨	하상 한국학교 4학년	중서부지역협의회	62
동상	서예준	에덴스한인침례교회 한국학교 4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64
동상	유도준	에덴스 한국문화학교 3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67
동상	함지훈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 4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70

수상소감

명랑 금상	주하늘	열린문 한국학교 10학년	워싱턴지역협의회	72
명랑 은상	이새해	애틀랜타 한국학교 9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73
한산 은상	조아라	임마누엘 한국학교 7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74
한산 은상	주민영	열린문 한국학교 8학년	워싱턴지역협의회	75
한산 동상	이루리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 8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76
한산 동상	주민하	열린문 한국학교 8학년	워싱턴지역협의회	77
옥포 금상	유하늘	애틀랜타 한국학교 4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78
옥포 은상	김세현	델라웨어 한국학교 4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79
옥포 동상	서예준	에덴스한인침례교회 한국학교 4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80
옥포 동상	유도준	에덴스 한국문화학교 3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81

편집후기

지수경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웹간사	82
-----	---------------	----



이 승 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안녕하세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지고지순한 애국 애족의 정신과 혼이 살아 숨 쉬는 고매한 성품을 기리기 위해 이순신미주교육본부의 후원으로 실시한 제1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에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산하 한국학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습니다. 제1회 수상작집 발간을 통해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의 작품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정한 심사로 수고해 주신 심사위원님들과 이문형 위원장님 그리고 손수 만든 거북선을 기증해 주신 채효성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국내 한국학교 사정을 잘 아시고 또한 한국학교와 관련한 경험을 가지고 계셔서 심사가 잘 이루어 졌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한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자신만의 표현력으로 자신의 삶과 연계하여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작품을 한데 모아 수상작집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수상작집을 통해 학생들과 다시 한 번 교감하고 공감하며 교육의 척도를 마련해 나갔으면 합니다.

특히, 미주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코리안 어메리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김 대 영

이순신미주교육본부 부이사장

한산도의 밤(閑山島夜吟)(이은상 역)

한 바다에 가을빛 저물었는데
 찬바람에 놀란 기러기 높이 떴구나
 가슴에 근심 가득 잠 못 드는 밤
 새벽달 창 너머로 칼과 활을 비추네.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잘 알고 있을 ‘한산도’를 대신하여 위 ‘한산도의 밤’이라는 시를 불러 본 이유는 본 시 역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절한 심사가 구구절절 가슴에 사무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순신 장군의 그 애절함, 그 간절함은 무엇이였을까? 그 답을 우리 어린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충무공 이순신 미주교육본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공모전”의 139편 응모작품을 통해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업적만을 기리는 속 빈 행사가 아니라, 장군의 5대 정신인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 ‘정의를 실천하는 정신’, ‘책임을 완수하는 정신’, ‘창의성을 발휘하는 개척정신’, ‘희생을 감내하며 헌신하는 정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에 우리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앞장을 서서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에 이어 이에 관한 ‘수상작집’을 내는 것에 마음 깊이 고마움을 느끼며, 찬사와 축하를 함께 드립니다. 앞으로 중단하는 일 없이 꼭 지속되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큼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른 한편으로 남아있는 기억을 더듬으며 알아보니 약 14년 전에 '워싱턴 문인회'(회장 이문형)에서 2004년 4월 28일 이순신 장군의 탄신일을 기리며 '이순신 문학공모전'을 실시하여 2008년 제5회까지 지속하다가 중단했던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의 꿈나무들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충효의 정신'을 본받아 '올바른 정체성'이 확립되도록 우리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후세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 주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요.

이에 재삼 감사와 격려와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축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 문 형

심사위원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이순신미주교육본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공모전’을 가진바 있습니다.

행사의 목적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지고지순한 애국애족의 정신과 혼이 살아 숨 쉬는 고매한 성품을 기리기 위해 본 글쓰기 대회를 개최한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모대상에는 NAKS 14개 지역협의회 소속 한국/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K~12학년 재학생으로 하였으며, 옥포상(4학년 이하), 한산상(5~8학년), 명량상(9~12학년)으로 구분하였고, 또 응모학생들의 눈높이에 합당한 부문별 주제를 주었으며, 부문별 원고의 분량까지 제시하였고, 이순신 교육본부 교육전문사이트를 활용하도록 참고문헌을 게재하기도 하였습니다.

응모 마감일인 12월 16일까지 총 146편이 접수되었는데, 이 중 7편이 분량(함량) 미달로 실격처리 되고 총 139편의 심사를 위해 16분의 심사위원들이 위 3개 부문으로 심사를 분담하여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워싱턴문인회에서 활동하는 시인과 수필가들, 그리고 재미한국학교워싱턴지역협의회 소속 교사님들이 참여하여 공정성을 최우선 심사 기준으로 삼고(NAKS 이승민 회장님과 지수경 웹간사와 협의 하에 채점에 꼭 필요한 응모학생의 이름과 학년만을 기록하고 다른 정보는 감추었으며 심지어 심사위원들의 신상마저 심사 당일까지 공개하지 않았음), 그리고 학년별 주제에

합당한가, 주제의 전개가 논리적이고 창의성이 있는가, 문장과 어휘 등이 연령이나 학년에 비추어 적절한가, 장군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등을 채점 기준으로 설정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심사평가모임을 가졌는데 심사위원들은 우리 어린이들의 우수성에 감탄을 하면서도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우려 내지 아쉬운 점을 펼쳐버리지 못하는 듯 하였습니다.

첫째, 부모형제, 교사님들의 협조가 꼭 필요한 여건이고 또 개입함으로써 함께 알아간다는 또 하나의 성과가 있기에 바라고 있는 개입이기는 하지만 아이를 교육시키는 그 이상의 직접적인 역할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점.

둘째, 이순신전문사이트를 방문하여 게재된 내용을 참작하라, 잘못된 Internet 지식에 시간낭비를 피하라는 주의사항을 제시했는데도 정말 안타깝게도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글쓰기를 한 작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이 아쉬움으로 남는다.(정보화시대의 범람하는 정보들을 손쉽게 접속하여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그 정보들이 모두 옳은 정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재인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아쉽다, 안타깝다는 얘기들을 먼저 늘어놓았지만 실은 놀랍다, 자랑스럽다는 것이 심사후기의 핵심적인 평가서다. 나이 어린 학생들의 작품이라고 보기에는 놀라울 정도로 논리의 전개가 우수했다. 오히려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심사를 할 수가 없는 정도였다. 덕분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으니 고마울 뿐이다.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것인데 이는 본 문학상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이순신 장군의 장군으로서의 면목과 인성으로서의 훌륭한 인품을 닮고 싶다는 의욕을 아낌없이 표현하였고 또한 성실한 마음가짐이 심사위원들을 감동케 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

가하고 싶다.

그리고 더욱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현 3개 부문(옥포, 한산, 명량)을 최소 4개 부문으로 더 세분화 하여 각 부문별 저학년 학생들의 평가가 공평해야 한다는 개선의 문제점에도 의견을 모아가는 중이며 심사위원들의 심사방법에도 개선점을 강구중에 있으니 귀추가 주목된다.

붙이는 말 한 가지는 주제를 무시하고 응모자 임의로 주제를 변경하거나 주어진 분량을 무시하는 등 실격 처리가 불가피한 미달 작이 없기를 바란다. 응모자 무두는 당락에 연연치 말고 각자가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 그만큼 알게 되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더욱 정진하시기를 바란다.



최우수상

위대한 승리를 위한 이순신 장군의 노력

최 하 영

Eunice Choi

디트로이트 세종학교 12학년

미시간지역협의회

나는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 여름방학마다 서울에 자주 가는 편이었다. 5년 전에 서울에 갔을 때 엄마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본 적이 있다. 큰 칼을 옆에 잡고 늠름하게 서있는 모습이 마치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척 인상적이었다. 광화문 광장 지하로 내려가니 이순신 장군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충무공이야기 전시장이 있었다. 전시장 중앙에 있는 커다란 거북선 모형 안에 들어가서 군사들이 노를 젓는 모습과 포를 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거북선 체험관에서는 나무 조각으로 거북선 모양을 맞추는 게임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지만 재미있었다.

그 다음해 여름방학 때 세종 역사문화 캠프에 참여하였다. 캠프동안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에 대해서 배웠는데 마지막 활동 시간에는 거북선 모형을 만들어 보았다. 실제 거북선과 거의 비슷하게 생긴 모형이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만들기가 어려웠지만 막상 끝내고 나니 뿌듯하고 보람도 있었다. 그 때 만든 거북선 모형은 지금도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캠프동안 배운 내용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순신 장군께서 명량해전 직전에 임금님께 드린 말씀이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배를 가

진 적군 앞에서 “아직도 12척이나 남아 있으니” 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씀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불굴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 수군의 배를 모두 합치면 평균 700에서 800여척이나 되었고 조선 수군은 70에서 80여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다. 만약 조선 수군의 배와 일본 수군의 배가 모두 동원되어 넓은 바다에서 싸웠다면 조선 수군의 전투력이 아무리 훌륭해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일본 수군의 배보다 적은 숫자의 배를 가지고도 항상 승리할 수 있었을까? 이순신 장군은 싸울 때와 싸움터를 스스로 결정하여 항상 전쟁의 주도권을 잡고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갔다. 이순신 장군은 싸워서 이길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싸움에만 나섰고 아니면 준비와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전술을 쓰면서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배들을 통합하여 사용하였다. 전체 배의 수에서는 조선 수군이 훨씬 적었지만 유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조선 수군은 통합된 반면 일본 수군은 분산된 상태에서 해전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통합된 배들로 분산된 적군의 배를 공격하여 언제나 완전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실제로 전투에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라는 문제에 항상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전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 무기와 전술의 변화를 정확히 읽어 내고 개발한 창의적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순신 장군은 배에 타고 있는 수군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북선에 거북등 모양의 덮개를 씌웠다. 거북선은 해전이 벌어지면 곧바로 적의 장군이 타고 있는 배를 향해 돌격하였다. 비록 거북선의 수는 적었지만 돌격선으로써 거북선이 일본 수군들에게 준 영향은 엄청났다. 조총과 활을 쏘아대도 꿈쩍도 하지 않고 돌격해 오는 거북선은 일본 수군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한산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 수군을 한산도 앞의 넓은 바다로 유인한 뒤 학의 날개 모양으로 적군의 배를 에워싸면서 거북선 3척을 앞세워 집중 공격을 하여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순신 장군의 주변에는 언제나 유능한 장수와 백성들로 넘쳐났다. 자신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인품에 감동되었기 때문이다. 이순신 장군은 그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하나씩 믿고 맡길 뿐만 아니라





먼저 모범을 보였다. 예를 들면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직접 활을 쏘기도 하고 활쏘기 연습을 감독하였다. 화살의 성능이 일본의 조총에 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특별한 일이 없는 경우 항상 장수들과 함께 활쏘기 연습을 했던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도망한 병사를 처형하여 ‘도망자는 사형’이라는 점을 전체 군대에 알리는 한편 부하들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법과 원칙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철저히 벌을 주었다. 이 원칙으로 인해 조선 수군의 사기가 높아져서 싸울 때마다 승리할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의 놀라운 승리는 나라의 도움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이다. 임진왜란 당시 임금님이 피난 가는 바람에 수군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식량, 무기, 배, 군사, 군복 등 전쟁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3년에 걸친 흉년과 전염병으로 생긴 위기상황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논과 밭을 개간하게 하여 식량을 생산하였고 백성들의 도움으로 한산도에 있던 수군들에게 식량을 대줄 수 있었다. 이순신 장군은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군사들의 훈련과 각종 무기의 준비 등 모든 준비를 스스로 해나갔다. 그가 처한 형편으로는 싸움을 포기해 버릴 수도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의지와 노력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임진왜란 내내 승리할 수 있었다.

백성을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모든 해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의 승리보다는 백성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적들이 육지에 올라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적군을 바다에서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백성에 대한 사랑은 전쟁 내내 계속되었다. 전쟁동안 바다에 나올 수 없는 백성들이 소금과 생선을 구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순신 장군은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고 물고기를 잡아 백성들의 곡식과 바꾸어 먹도록 하여 서로의 어려움을 해결하였다. 전쟁 중에 살 곳을 잃은 백성들에게 돌산도를 개간하게 하여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자 돌산도, 한산도, 고금도에는 백성들이 모여들었고 계속되는 전투를 위해 가장 필요한 식량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백성들은 식량뿐만 아니라 배와 무기를 만들기 위해

서도 열심히 노력하였다. 이순신 장군을 믿고 따른 백성들의 도움으로 전투력이 강해졌고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7년 동안 크고 작은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거두기 위해 이순신 장군은 항상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서 적군을 공격했다. 전쟁 기간 동안 나라의 지원 없이 전쟁에 필요한 준비를 백성들의 도움으로 해결하였고 거북선과 새로운 전술을 사용하여 항상 승리를 거두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승리는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치른 훌륭한 리더십과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합쳐진 결과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위대한 영웅으로 존경하는 이유는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나라를 지켜 백성들을 구해내는 희생적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다. 미래의 리더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처럼 전문성과 훌륭한 인품을 갖춘 ‘위대한 리더’가 되기 위해 어떤 희생과 노력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명량 금상

영원한 이순신 장군의 유산

주 하 늘

Jane Haneul Chu
열린문 한국학교 10학년
워싱턴지역협의회

이순신 장군께서는 16세기 조선의 장군으로 임진왜란 7년 동안 23전 23승으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지키신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체계적인 훈련을 하고 군사 시설을 재정비하는 등 탁월한 지도력으로 조선 해군을 용기 있고 막강한 군대로 키우셨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께서는 거북선을 개발하고 남해안의 지리적 특징을 이용해 적은 수의 군함과 군대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고 불굴의 의지로 전투에 임하시는 전략가로 지금까지도 세계 여러 나라 해군 제독들로부터 위대한 해군 제독이며 영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라도 좌수사로 부임해서 일본과의 전쟁에 대비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아무렇게나 방치된 무기와 군사 시설을 수리하고, 군인들에게 제대로 된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주력 전함인 기동력과 방향 전환에 유리한 판옥선에 등판을 얻고 쇠못을 박아 수비력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화포를 설치해 전투력을 높인 거북선을 개발했습니다. 거북선은 거북이 모양으로 철로 만들어졌고, 용머리는 일본군에게 겁을 줄 수 있는 모양으로 용머리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일본군이 앞을 볼 수 없도록 했습

니다. 거북선은 15개의 대포와 2개의 돛이 있었고, 1개의 돛은 평행을 위한 것이고, 다른 한 개의 돛은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 돛이었습니다. 거북선 옆에는 우리 해군이 숨어 일본군을 정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고, 일본군은 정찰하는 우리 해군을 볼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일본군이 사용하는 조총으로는 거북선을 물리칠 수 없었으며 거북선 등에 있는 쇠못 때문에 일본군들이 거북선을 공격하기 힘들었습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은 조선 항구를 공격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판옥선은 일본 배와는 달리 배 밑이 평면이기 때문에 빠른 회전을 할 수 있었지만, 일본군의 배는 바닥이 V자 모양이라 빠른 회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판옥선은 방향전환이 쉽고 기동력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노를 배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데 비해 일본 배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로 부딪혔을 때 일본 배가 먼저 부서지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그 점을 이용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일본의 공격에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과 거북선으로 싸워서 승리하였습니다. 거북선은 돌격함으로 적의 가운데로 들어가 화포를 쏘서 적을 흠으려 놓고 공격을 했는데 파괴력이 컸습니다. 거북선의 강력한 힘에 일본군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거북선으로 일본군을 전멸시키고, 승리하였습니다.

한산대첩에서는 학익진 대형으로 싸움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학익진은 원래 땅에서 육군들이 사용하는 대형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 대형을 해전에서 사용했는데, 학익진 대형은 좁은 바다로 일본군을 도망가는 척 유인하다가 갑자기 뒤로 돌아 포위해서 공격하는 대형으로, 판옥선으로 학익진 대형을 하게 되면 빠르게 방향을 전환해서 공격할 수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은 알았습니다. 학익진 대형은 도망가던 우리 해군이 일본 해군을 포위했을 때 일본 배는 빠른 방향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를 뒤편에 걸리게 하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산대첩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학익진 대형으로 59척의 일본 배와 9천 명의 일본군을 전멸시켰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한산대첩 승리는 모든 해군과 남쪽 바다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이순신 장군은 통제사가 되었습니다. 모든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은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셨지만, 학익진은 정말 대단한 전법이었습니다.





선조 대왕께서 이순신 장군에게 부산으로 가서 일본 장군을 잡아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선조 대왕의 명령대로 하면 우리 군인들과 배들이 모두 전멸할 것이라고 하였고, 그것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승리하지 못할 전투를 해서 군사들의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 선조 대왕의 명령을 거역해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께서 왕의 명령보다도 백성과 군사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으로 신분에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있는 동안 다른 장군이 부산으로 가서 일본군과 싸웠지만, 우리 해군들이 모두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 해군이 전멸했습니다. 그 후에 선조 대왕은 이순신 장군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해군을 다시 강하게 훈련시키고 부서진 배들을 고쳤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판옥선을 준비하여 명량해전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판옥선을 물길에 따라 잘 배치를 하였고, 13척의 판옥선으로 일본군의 133척의 배와 싸워서 일본군 배 31척이 부서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다의 물길을 잘 이용하여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이순신 장군은 중국군과 같이 싸울 수 있도록 합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쟁인 노량해전입니다. 일본군은 500척의 배로 순천으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이순신 장군은 145척의 배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145척의 배로 일본군을 전멸시킬 수 있는 기습공격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기습공격으로 일본군을 전멸시키고 노량해전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일본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화살에 맞았다는 것을 우리 해군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생명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 때문에 우리 해군들이 계속 싸워서 일본군을 전멸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량해전으로 임진왜란은 조선의 승리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신을 희생하여 나라를 구한 대단한 영웅으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지리적 특징과 물의 흐름과 그에 잘 맞게 개발한 배와 무기의 사용,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꼼꼼하게 분석해서 적과 우리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전투에 나갔습니다. 일

본군에게 최대한 피해를 많이 주고 우리는 피해를 당하지 않을 계획을 세워서 항상 이기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고 아직도 너무 신기하고 존경스럽습니다. 백성들과 군사들은 그런 이순신 장군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며 힘을 합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이 계시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장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순신 장군은 기적을 만들어낸 위대한 지도자이며 영웅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충무공 정신은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정신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모님들을 매우 존경하였으며, 이순신 장군의 하급자들도 공경하였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평민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져도 백성들의 생명을 걱정하기 다는 왕과 양반들이 살기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조선에 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했으며,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왕과 양반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모든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병사들이 전투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모두가 살아남아야 한다는 다짐을 하고 이길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만 전투를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해군들에게 동기부여를 조선을 위해 싸우고, 가족을 위해 싸우고, 동료를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도 희생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선조 대왕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혀있을 때와 백의종군할 때도 왕을 원망하지 않고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희생한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가족을 돌보지 않고 나라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많이 보고 싶었지만, 부인이 아팠을 때도 전쟁 중이어서, 부인에게 가지 않았고, 어머니에게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의 우선순위는 나라를 구하는 것이 첫째로 백성들을 일본군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에 어릴 때 오셔서 교육을 받은 부모님 덕분에 저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권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의 문화권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미국 학교만 다녔고, 미국 교육을 받았습니다. 전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어와 한국역사 수업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거북선을 만든 분이라는 것 정도만 알았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글쓰기 대회에 참가하면서 이순신 웹사이트를 통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순신 장군은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살 수도 있었고, 인정받으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왜 쉬지도 못하고 가족도 돌보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 바이올린 연주, 그리고 수영 등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저의 명예와 만족을 위해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희생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희생해서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23번의 전투에서 23번 모두 승리한 것은 믿을 수 없는 신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본군보다 군사와 배, 무기도 부족하고 식량도 많지 않은 데다 백성까지 돌보며 이기기 힘든 전쟁을 해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절대 지지 않는 전투를 했다는 것이 처음에는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 앞서 정보 수집을 철저히 하고 그 정보와 여러 가지 상황을 잘 보고 승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만 전투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일본군이 몇 배가 많아도 군사들과 백성들이 겁내지 않고 이순신 장군의 지시에 따르면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동안 이순신 장군은 뛰어난 전략으로 우리 해군을 승리로 이끌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백성들을 지킴으로써 믿음을 가지고 따르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순신 장군의 전략에 더해져서 임진왜란 7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라와 백성을 구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다른 사람보다는 저 자신을 더 많이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겠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순신 장군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산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명랑 은상

조선을 지켜낸 장군 : 이순신

이 새 해

Tiffany Lee

애틀랜타 한국학교 9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예전부터 주변국가로부터 침략이 많은 우리나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많은 조상들의 희생이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기억해야 할 훌륭한 인물은 아마도 이순신 장군일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에게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난중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일기에서 우리는 이순신의 성품과 최고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알 수 있다. 그리고 7년 동안 한 번의 패배도 없이 승리를 거둔 이순신의 뛰어난 지혜와 노력, 집념을 볼 수 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마라.

나는 몰락한 역적의 가문에서 태어나 가난 때문에 외갓집에서 자라났다.”

어린 시절 이순신은 좋은 집안의 다른 아이들처럼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력해야만 자질 수 있었다. 아이들과 전쟁놀이를 하면서도 리더가 되어 친구들을 이끌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이순신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게 되었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 노력과 인내해야 하는 것을 배웠다. 어려운 상황에서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지 된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탓하면서 바뀔 생각을 하지 못하지만, 이순신은 끊임없이 노력했다. 이런 노력이 나중에 이순신이 군대를 이끌어가는 장군의 자리에서 빛을 낼 수 있었다.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첫 시험에서 낙방하고 서른들의 늦은 나이에야 겨우 과거에 급제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목표에 빨리 오르지 못하면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순신은 친구들이 과거시험에 합격하고 직책을 맡는걸 보면서 한 번 세운 목표를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내는 흔들림 없는 사람이었다.

“좋은 직위가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 오지의 말단 수비 장교로 돌았다.”

자신의 직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순신은 좋고, 나쁜 위치에 불만 없이 맡은 책임을 다하는 성실함을 가지고 있었다. 후에 전라좌수사라는 높은 직책을 맡았지만 이순신은 부하들을 낮은 직책이라 무시하지 않고 한결같은 규율과 군법으로 공평하고 바르게 이끌었다.

“윗사람의 지시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불의한 직속상관들과의 불화로 몇 차례나 파면과 불이익을 받았다.”

자신이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고 잘못된 명령은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생겨도 따르지 않았다. 상관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능력과 상관없이 친한 친구를 승진시키는 걸 참지 못했다. 이런 그의 정직함과 성실성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이순신을 더욱더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다.

“몸이 약하다고 고민하지 마라.

나는 평생 동안 고질적인 위장병과 전염병으로 고통 받았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동안 조선이라는 나라는 혼란한 시대였다. 조선은 먹을 식량도 무기도 많이 없었고, 정부내부에서는 서로 싸우느라 바빴다. 이순신은

조선을 지켜야한다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야했다. 자신의 몸을 돌
봄 틈조차 없었다. 자신의 몸보다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빛나는 승리를 함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는 적군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태로워진 후 마흔 일곱에 제독이 되었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변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본
의 침략을 대비해 배와 군사를 재정비해서 전쟁에 철저히 대비하는 준비성을
보여주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그동안 준비해온 실력을 발휘해서 일본과의
해전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나는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자금을 만들었고, 스물세 번 싸워 스물세 번 이
겼다.”

왜적의 침입을 예측한 사람은 없었다. 오직 이순신 장군만이 일본의 침입에
대비해 병사와 배들을 재정비했다. 나라의 지원 없이 이순신은 기발한 창의력
과 독창성으로 일본군과 당당히 싸워 승리를 이루었다. 세계최초의 철갑배인
거북선도 발명하여 적은 군대인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필요한 식량을 직접 군대에서 농사지어 조달하고, 해로 통행제도 만들
어 군자금을 모았다. 준비성이 철저한 이순신 장군의 노력이 훗날 임진왜란에
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다.

“윗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갖지 마라.

나는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와 의심으로 모든 공을 뺏긴 채 옥살이를 해야
했다.”

이순신의 정직함과 용기는 임금이라도 꺾지 못했다. 많은 희생이 보이는 전
쟁에 나가라는 임금의 명령에 찬성할 수 없던 이순신은 옥살이를 택했다. 자신
의 혼자만의 희생으로 많은 부하들의 목숨을 건진 것이다. 부하들의 희생을 막
은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임금이 아무리 의심을 해도 충성심을 잃지 않고 조





선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나는 빈손으로 돌아온 전쟁터에서 열두 척의 낡은 배로 133 척의 적을 막았다.”

역사에 남아있는 유명한 전쟁인 명량해전. 낡은 배 13 척으로 일본배 133 척을 막아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다. 적은 수의 병력으로 많은 일본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이순신은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전략, 그리고 물의 흐름과 지형의 이점을 파악해서 겁에 질린 조선장수들 앞에 이순신 장군이 제일먼저 배를 몰아 일본군으로 향했다.

죽기로 작정한 것만큼 무서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반드시 죽고자하면 살고, 살고자하면 죽는다! 라고 외치며 우리 장수들을 힘 있게 이끌어 큰 승리를 이루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이순신의 힘이었다. 싸움에서 절대지지 않는 불패의 장군 이순신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적들이 물러가는 마지막 전투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전투인 노량해전에서 일본의 총에 맞은 이순신 장군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의무가 끝나지 않았다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외쳤다.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과 의무를 다한 이순신 장군이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임진왜란 7 년 전쟁이 끝이 났다.

싸움에서 절대지지 않는 불패의 장군 이순신, 그의 이름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순신 장군의 위대한 인격, 뛰어난 전략, 천재적인 창의력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이순신 장군이 거둔 승리는 아주 불리한 조건들에서 싸웠는데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정부의 도움 없이 혼자 이루어낸 것이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세계 최고의 제독으로 인정받는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모습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섬 없이 맞서 이겨내는 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겠다.



명량 은상

불패의 이순신

이 세 현

Landon Lee

탬파통합 한국학교 9학년

플로리다지역협의회

23 전 23 승. 1545부터 아직까지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세계 기록이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에 위대한 장군이였다. 조선의 백성과 가족을 무척 사랑했다. 새로운 전략들과 파괴의 무기를 개발해냈다. 쳐들어오는 일본인들을 죽기까지 싸웠다.

이순신은 고통 받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선을 침략한 일본군을 물리쳐야 한다고 생각 했다. 당시 다른 장군들은 일본군이 바다에서 강하다고 생각하고 육지에서 싸우고자 했으나, 이순신은 상황을 파악한 후 준비만 잘하면 바다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더욱이 적이 땅에 닿으면 그 순간부터 백성들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에 바다에서 제압하고자 해전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그래서 나는 적을 제압하기 위해 이순신 장군이 어떤 준비를 했는지 알아보았다.

1. 남해 바다는 섬이 복잡하게 널려 있어 어려운 작전지역이었지만 조선수군에게는 유리한 작전환경을 제공했다. 더욱이 이순신 밑에는 남해의 물길을 손금 보듯 통달한 어영담이라는 장수가 있어 살아있는 지도 역할을 했



다. 어영담의 덕분으로 이순신은 적의 눈을 피해 밤에 항해를 즐겨했다. 또 견내량, 명량 등 물의 깊이와 흐름, 해협이 넓이와 수중 쇄사슬 등 지리적 특성을 아주 잘 이용하기도 했다.

2. 조정에서는 지원을 해 주지 않았지만 이순신은 군사들이 먹을 음식을 구하고, 충분한 무기를 마련하며, 싸움에 사용할 배를 만들고, 군사들에게 군복을 마련해 입히며, 군사를 모집하는 등 군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다. 그리고 싸울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을 시켰다.
3. 판옥선은 왜구들이 기어오를 수 없도록 배를 크고 높게 만들어야 한다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순신은 대형화된 판옥선에 방탄 지붕을 덮어 태종대왕 대에 기록되어 있는 거북 모양으로 바꾸어서 돌격선 거북선을 개발해 냈다. 또한 판옥선의 크기의 장점에 착안하여 보통 좌우 각각 6문씩 12문과 앞뒤 1문씩 14문의 화포를 탑재케 하여 판옥선을 가공할 화력의 포함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투시 평저 판옥선의 선체 회전 능력을 이용하여 현측을 180도씩 번갈아 돌려 대어 한쪽 6문의 화포가 정면으로 적을 향한 자세로 집중 발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명중률과 공격력을 극대화한데 있다. 또 적과 반대 방향에 있는 다른 6문의 화포는 직전 발사 후 선체를 반대로 돌리는 동안 새로운 화약을 장전하여 2차 발사 준비를 완료함으로써 좌우를 합하여서 연속 발사 형태를 이루어 판옥선의 해전 적합도를 극대화한 이순신 전법은 감탄 그 자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효용을 확대하고 극대화한 판옥전선은 기발한 거북선의 모태가 되면서 임진왜란 당시 본격 화포전을 선도하고 한중일 삼국 중 단연 최강의 해상 전투력을 유지하면서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

4. 그러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도 이순신과 같은 리더가 없이는 전승과 압도적 완승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순신의 전략을 들어보면

- 생존전술-이순신은 항상 살아남는 전술을 으뜸으로 삼아 적에게만 큰 피해를 줄 뿐 우리 군사는 끔찍이 아껴서 조선 수군이 7년 전쟁을 끈질기게 살아남아 최후의 승리를 확보했던 것이다.
- 싸울 때와 싸움터는 내가 결정한다. - 이순신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서는 싸움만 나가고 아니면 준비와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리는 전술을 썼다.
- 창의적 전술-이순신은 전투 환경에 가장 적합한 새로운 전법을 끊임없이 만들어 냈다. 거북선 돌격전법, 학익진 포위작전, 부산포 원정공격, 웅포 상륙작전, 명량지리전, 노량화공작전 등의 변환이 그것이다.
- 통합의 리더십-이순신의 수군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순신이 그 막하 장졸과 백성을 “국토사수”라는 단일 목표에 통합 단결 시키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며 그 두드러진 예가 명량해전의 국민 총력전이다.

이와 같이 조선 수군 백전백승의 비결은 바로 선조들의 지혜인 화포 및 판옥선의 전력을 극대화 하고 자신의 새로운 거북선과 전술을 더하면서 필사즉생의 결연한 국토수호 의지로 막하군민의 하늘같은 신뢰를 확보한 이순신의 위대한 리더십의 승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임진왜란 최초의 싸움인 옥포해전을 앞두고 겁에 질려 있는 군사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勿令忘動 靜重如山 :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무겁기를 산같이 하라〉는 군령을 내렸다. 이는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더욱 신중할 것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 하루 전날, 칠천량 해전 참패로 극도의 두려움에 빠진 군사들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북돋우고 죽기로 싸워 이길 것을 촉구하기 위해 〈必死即生 必生即死 一夫當逕 足懼千夫 : 죽기로 싸우면 살 것이요 살고자 피하면 죽는다.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족히 천명도 두렵게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지휘력으로 명량해전에서 열 배가 넘는 왜군





과 싸워 조선 수군이 완승을 거두었다.

“아직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항거해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록 전선은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노력과 의지!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이,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지금 이순신 장군을 만나보고 싶다.



명랑 동상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로운 분

이 스텔라

Stella Lee

지혜 한국학교 9학년

워싱턴지역협의회

미국고등학교 역사교과과정은 오늘날 미국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역사적인 인물들의 교훈과 정보들을 함께 모아놓았습니다. 평균적으로 9학년 학생들은 노예제도를 폐지한 아브라함 대통령, 로마 개톨릭 교회를 개혁하여 개신교로 갈라져 나온 마틴 루터 등을 포함하여 알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과정을 크게할 수 있지만, 역사적인 인물들의 많은 양의 내용을 다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은 다른 나라에서 출생하였고 각각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지는 않았지만, 세계 역사에 분명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의 역사의 뿌리에서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제독입니다.

1545년 4월 28일 인종대왕 때 이 순신이 탄생했습니다. 이 순신은 철학적 사상을 중시하는 중상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순신이 청소년 시절에 아산에 여행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산에서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습니다. 이 순신은 군사와 전쟁과 관련된 전쟁놀이하기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전쟁놀이를 할 때마다 그는 대장 역할을 하곤 했습니다. 21살



때 말을 타며 활쏘기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전쟁놀이를 열정적으로 하던 이순신은 28살 때 군관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시험을 보는 동안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가까운 개울가에 절룩절룩 뛰어가서 나무 가지로 다리를 붙들어 매고 끝까지 시험을 마쳤습니다. 이순신의 행동을 보면 사고 중에도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기지가 보여주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시험을 마치는 그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1592년 4월 13일 일본의 대장,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새로운 화기 기술을 가지고 부산의 조선 군영을 공격하라고 160,000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새로운 화기는 그 위력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기술은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이 순신 장군의 경쟁자였던 원균 장군은 적군의 엄청난 위력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포기하고 모든 짐을 이순신 장군에게 떠 맡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일본의 힘은 엄청난 것으로 나타났고 이순신의 담대한 용기가 원균과 비교되었습니다. 불굴의 이 순신은 그의 임무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1592년 5월 4일 그의 일본 해군을 그의 전함들로 무찔렀습니다. 이 전투는 일본을 패배시킨 이순신 장군의 첫 승리였습니다. 이 순신은 공포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화기의 신기술에 대한 무시무시한 짐에 눌리지 않았습니다. 이 순신은 일본의 무서운 힘에 항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일본인들은 당포와 사천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순신은 그들과 두 번째로 싸워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총’이라고 부르는 새로 개발된 무기를 가지고 아무데서든지 일본 사람들이 나타나자 놀랐지만 이번에는 일본 사람들이 놀랄만한 것이 나왔습니다. 이 순신은 그의 지혜와 세심한 계획으로 ‘거북선’이라고 부르는 배를 특별하게 새로 개발했습니다. 새로 개발된 거북선은 일본을 대항하여 전투에서 훌륭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 그 효과를 크게 증명하였습니다. 음양과 같이 거북선은 공격이나 수비에 있어서 그 기능을 균형 있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서 그 기능이 매우 생산적이고 위력적인 배였습니다. 일본이 조총으로 알려진 위협적인 무기를 가지고 아무데서 나타났지만 이 순신은 창의적인 거북선을 개발하여 재빠르게 응전하므로 결코 패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다시 공격했습니다. 이번에는 한산도였습니다. 이순신은 ‘학익진 전법’으로 알려진 또 다른 포위 공격 전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전법으로 일본군은 9,000 명이 죽었고 59척의 배를 파괴시켰습니다. 한편 조선의 배는 하나도 파손되지 않았고 19명만 죽었을 뿐입니다. 이순신은 바다의 길을 찾을 수 없었던 일본 군인들은 몹시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을 크게 승리하므로 이순신은 수군의 최고 사령관인 통제사직으로 승진되었습니다.

1598년 11월 19일, 노랑해협에서 이순신과 명나라 진린 장군은 145척으로 500척의 일본함대에 기습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전쟁은 매우 치열했습니다. 싸움이 끝나갈 무렵, 약 200척의 일본 배들을 파손시킨 뒤 이순신은 가슴에 총을 맞았습니다. 군사들의 사기를 걱정한 이순신은 아들과 조카에게 “방패로 내 몸을 가려라. 싸움이 한창 급하다.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이순신 장군은 죽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20번 이상의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을의 주민들과 그 마을들을 돌보며 끝없이 그의 생명을 던져서 일본과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어 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의 생애를 존경하고 롤 모델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인들은 그의 업적을 기리며 그들의 삶의 안내자로 말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광활한 바다를 지키는 해군들의 가슴에 아직까지 살아있는 영웅으로 한국 전함에 ‘이순신 전함’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한국의 이순신 장군은 과거를 볼 뿐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미래를 내다보게 합니다. 그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며 미래를 개척해 간 분이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는 역사적인 인물로 역사 교과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기대해 봅니다. 이순신 장군은 내 마음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한국인들에게 존경받으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영웅이 될 것입니다.





명량 동상

충무공 이순신을 내 마음속에 저장!

박 지 연

Chloe Park

사랑 한국학교 9학년

동북부지역협의회

지금부터 472년 전 1545년 4월 28일.

한국의 자랑스러운 영웅이 태어난 역사적인 날이지요. ‘불패의 신’이라 불리는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바로 그날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신화같은 활동을 한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본이 조선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1597년까지 계속된 임진왜란은 이순신 장군과 일본의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의 모든 공격을 훌륭하게 막아낸 이순신 장군께서는 바로 이때 ‘불패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으셨습니다. 전설의 이순신 장군은 대중들이 알고 있는 23전 23승이 아닌, 62전 62승이라는 믿기 어려운 승리를 거둔 자랑스러운 인물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선 수군 함선은 한 척도 잃지 않으면서, 1163척의 왜 수군 함선을 무찌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그 이유와 힘이, 첫째 이순신 장군이 쉽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노력과 훈련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훌륭한 군사가 되려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22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말타기와

활쏘기 훈련을 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훈련해서 28살에 무관시험을 봤지만, 말에서 떨어지는 실수로 인해 불합격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실패에 끌리지 않고 꿈을 이루려 더욱더 노력을 해서 32살에 시험을 다시 보고 합격을 해냈습니다. 그 끈기와 노력으로 인해 이순신은 우리가 아는 훌륭한 장군이 될 수 있었지요. 만약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에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를 했었고 군관이 되지 못했더라면, 약하디 약한 조선은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일본 영토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명랑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은 13척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의 배들을 써서 133척의 배를 끌고 와서 싸운 왜군을 성공적으로 물리쳤습니다. 13척의 배를 가지고 일본의 133척의 전선과 맞싸워야 하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도 그 당시 왕이었던 선조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있습니다.” 일반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포기를 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포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실패할 확률이 높았으니까요. 하지만 13 대 133이라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죽어도 싸워야 할 싸움’이었던 희망 없는 명랑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순신 장군의 끊임없이 연구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짜고, 훈련으로 준비하는 습관이 그를 모든 전투에서 이기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노력은 이순신 장군에게 조선 수군이 처한 그때그때의 상황을 정확히 알게 해주었습니다. 7년 동안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남해는 섬이 1000개가 넘게 있어서 다도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남해의 물길, 물의 깊이와 흐름, 해협이 넓이 등등을 손바닥처럼 자세히 알고 있는 장수 어영담이 있었습니다. 어영담이 갖고 있던 남해에 대한 지식과 주로 육지전에서 쓰이던 학익진법을 더해서 한산도대첩을 승리로 이끈 것만 봐도,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열심히 전술을 준비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 하면 떠올리는 거북선은 사실 그가 처음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면 1413년에 태종이 거북선을 봤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나오고, 1592년에 이순신의 거북선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거북선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이순신 장군은 대형 판옥선에 투쟁





을 만들어 덮고, 거기에 쇠못을 박고, 10개 정도의 화포를 장착해서 전투함 거북선을 재개발했던 겁니다. 180년 전의 거북선을 이용해서 재탄생시킨 전투함 거북선은 아주 창의적이고 영리한 구조로 많이 알려져 있는 함선입니다. 이런 함선을 미리 만들어낸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판단력과 성실한 준비와 연구 덕분에 62전 62승이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셋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넓은 마음과 강한 지도력이 그를 백전백승의 장군으로 만들었습니다. 충무공의 한결같은 성품과 앓은 부하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어내고, 부하들이 가진 능력을 100% 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게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오랜 숙적관계에 있던 원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원균을 모시던 배설이라는 군사가 원균에게 실망해서 판옥선 12척을 끌고 도망쳐 왔을 때 이순신 장군은 그를 받아들여줬습니다. 명량대첩에서 활약한 13척의 배들 중 12척이 바로 배설이 끌고 온 판옥선 12척입니다. 조선 수군은 그가 가지고 온 12척의 배를 활용해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순신 장군이 원균에 대한 개인적인 미움 때문에 배설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12척의 배마저 없었더라면 조선은 왜군들에게 패배 당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리더는 아랫사람들을 아껴줄 줄 알아야합니다. 아껴주고 챙겨줘야 부하들의 절대적인 신뢰와 충성을 얻어낼 수 있고, 그랬을 때 리더가 이끄는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자기의 충실한 부하였던 배설을 잃은 원균같은 리더가 되면 안 됩니다. 아랫사람들을 실망시켜서 재능 있는 인재들을 잃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이지요. 리더는 넓은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을 품어줄 줄 알아야한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은 배설을 받아주는 것으로 보여주었고, 그 일을 통해 명량대첩 승리를 가능하게 했던 배 12척을 얻을 수 있었지요. 이순신 장군은 훌륭한 성품과 지도력으로 '불패의 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이순신 장군은 자기 자신과 가족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마주한 모든 전투에 목숨을 걸었고,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승진하지 못하고 좌천된 적이 여러 번 반복되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나라가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달려갔습니다. 왕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이룬 일에 칭찬이나 상을 받지 못해도 이순신 장군은 양심을 품고 왕을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조선에 대한 사랑을 키우고 자신과 자기 민족의 땅을 왜군들로부터 지키려고 더욱더 최선을 다함으로 수많은 전투들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이기도 하고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투이기도 한 노량대첩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꺼지지 않는 애국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200척 정도의 왜군 함선을 무찔렀을 때 이순신 장군은 적군의 총에 맞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그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의지하고 있는 장군이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조선 수군은 용기를 잃고 전투에 지게 될 것이고, 반대로 왜군들은 자신들의 적들이 최고로 의지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면 용기가 생겨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반드시 이겼으면 하는 이순신 장군의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끝까지 불처럼 타오른 애국심 때문에 조선 수군들도 끝까지 싸워서 왜군들을 완전히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남긴 수많은 업적들도 배울 점이 많기는 하지만 그의 삶의 방식과 좋은 판단력에서 배울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을 억울하게 못하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나라를 위해 싸운 이순신 장군의 노력과 충성은 배울 점이 정말 많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를 겪는 경우는 아주 많은데 잦은 실패 때문에 좌절하면서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해하고 절망해서 포기하면 결국에는 지게 되는 거겠지요.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열심히 훈련을 해서 억울한 상황을 빠져 나와야합니다. 그래야 진짜 승리자가 됩니다.

비록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아주 많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방심하지도 말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하는 것도 배웠고, 꾸준히 꿈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도 이순신 장군의 인생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수백 년 전 우리나라를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저 같은 어린 학생들을 위한 롤모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장군의 인생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교훈을 얻어갈 수 있지요. 참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이런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이 마지막 전투인 노량대첩의 승리를 못 보고 죽은 게 저는 참으로 아쉽습니다. 적탄에 맞지 않고 살아서 노량대첩의 승리를 볼 수 있었더라면, 사랑하는 조선의 승리를 진심으로 크게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혼자 상상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꼭 승리의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럴 방법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되고나서 약 7년이 지난 1598년 12월 16일.

이 날은 바로 한국의 위대한 ‘불패의 신’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그 날이지요. 마지막까지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적들에게 자기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던 영웅적인 죽음이었습니다. 역사책에는 이순신 장군이 1598년 12월 16일에 돌아가셨다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많은 인생 교훈을 가르쳐주고 나라를 구해낸 영웅인 이순신 장군은 제 마음 속에 저와 함께 살아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몇 번의 성공에 만족해서 방심하지도 않을 것이고,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 꿈을 이루는 날까지 열심히 달려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명랑 동상

기본적인 리더십을 지킨 이순신 장군

진 용 준

Yongjun jin

넋가에 심은 나무 한국학교 10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몇 년 전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다. 명랑해전 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우리 가족이 자주 보는 예능 tv에서는 이 말이 많이 나왔다.

나는 5살에 가족과 함께 미국에 오게 되었다 . 아직도 공항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른 가족들과 헤어진 것이 기억에 난다.

그때만 해도 할아버지는 건강히 살아계셨었는데 3년 전에 할아버지는 하늘 나라에 가셨다.

내가 미국에 온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미국에 와서 제일 걱정이 한국말을 잊어버릴까 봐 걱정하셨던 엄마 아빠는 나를 한국학교에 보내셨다. 이제 1학기만 더 다니면 드디어 한국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이 된다.

한국학교에 다니다 보니 글짓기 대회도 많이 나가고 매주 숙제들이 많이 있었다. 한국을 빛낸 영웅들에 대해 배운 적도 많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거북선이었다.

거북이 모양으로 배를 만들어 아주 옛날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 왔을 때



싸움에서 이긴 사람.

이번에 이순신에 대해 글을 쓰는 것이 있어서 위인전을 자세히 읽어볼 기회가 생겼었다.

이순신은 1545년 3월에 지금의 서울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그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다. 활쏘기와 말타기를 열심히 하여 32살이 되던 해 과거에 통과했다. 가장 유명한 거북선이 나오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얼마 전이다. 그는 전라도를 지키는 해군의 대장이 되었고 일본이 쳐들어 올 것을 미리 알고 화약과 거북선을 연구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1592년 마침내 왜군이 쳐들어 왔고 일본은 조총이라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5월7일 이순신은 옥포에서 일본군과 처음으로 마주쳤고 그 날 싸움에서 이순신은 일본 배 30척 가운데 26척을 부수는 승리를 하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어려서부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세운 뜻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 내는 마음이 아주 굳건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내는 창의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순신 장군은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항상 더 좋은 것을 생각해내는데 정성을 기울였던 사람이다. 그래서 적의 공격을 끄떡없이 막아내며 안심하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거북선을 세계최초로 만들어 냈으며 군사를 먹일 식량걱정을 덜고자 군사농장을 만들었고 전쟁이 길어지자 싸우는 군사들이 국가시험인 과거를 보지 못해 억울해지자 나라에 건의하여 임시로 과거시험을 치르게 해 주었다. 정말 생각이 깊은 사람 같다. 전쟁에 나가 있으면 내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무서울 것 같은데 다른 사람까지 걱정해주는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에서 본받아야 할 자세인 것 같다.

이순신 장군 하면 또 떠오르는 것이 난중일기이다. 그 당시에는 장수라 하더라도 싸움만 지휘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을 임금님께 보고해야 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일일이 편지로도 허락을 받아야 했던 시절인데 이순신 장군은 매일마다 꼬박꼬박 전쟁하면서 일기도 썼을 만큼 기록정신과 부지런함이 남달랐다고 한다.

나는 테니스를 하는 학생이다. 시합을 하는 것도 전쟁 하는 것처럼 다른 선수를 이겨야 내가 점수도 올라가고 더 발전할 수 있다. 시합을 하고 나서 이

번 경기에서 무엇이 좋았는지 다음경기에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기록 해야 하는데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다. 그래야 나에게도 발전이 있을 텐데 말이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순신 장군은 정말 부지런했던 장군이었던 것 같다.

이순신 장군은 효심 또한 남달랐다 한다.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쓰였다 한다. “나라에 충성을 바치려 했건만 이미 죄를 지었고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려 했건만 어버이마저 먼저 가버리셨구나 오호라 천지간에 나 같은 운명이 또 있으랴 차라리 일찍 죽는 것만도 못 하구나”

이번에 이순신 장군에 대해 글을 쓰려고 책을 읽다 보니 충무공의 정신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충무공의 기본정신은 요즘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 필요한 자신과 자기의 소원보다는 남과 남의 행복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나라와 부모를 지극히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되돌아보고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은 일본해군과 싸울 때마다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가졌다.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길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 그는 기본에 충실한 리더였다고 생각한다. 그는 기본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우리 편의 배치 상황을 숨기라 했다. 적의 허점을 공략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그는 어려울 때 일수록 앞장서는 사람이었다.

세 번째로 겸손하지만 당당함을 잃지 않는 리더였다. 이순신은 그의 승리에 교만하지 않고 전투에서 부하들을 더 드러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다.

충무공 이순신의 리더십은 그렇게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매우 기본적이며 당연한 것들이다. 오늘날에도 꼭 필요한 리더십이다. 나도 이것들을 잘 실천해서 좋은 리더자로 자라고 싶다.





한산 금상

우리 바다의 영웅 이순신

임 단 아

Dana Lim

새하늘 한국학교 5학년

북가주지역협의회

백 원짜리 동전을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누구의 얼굴이 보이지요? 이 얼굴은 이순신 장군의 얼굴이에요. 이 장군은 무슨 일을 하셨기에 우리가 자주 보는 동전에 얼굴이 있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전쟁에서 싸웠어요. 임진왜란은 조선(한국) 그리고 왜(일본)가 싸운 전쟁이었어요. 한 전투에서 왜군의 배는 삼백 척이나 되었고 조선의 배는 열세 척 밖에 안 되었어요. 그리고 왜 에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배와 군사와 강한 무기가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이런 상황에서도 왜군을 무찌르고 조선을 구한 훌륭한 장군이에요.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까지도 욕심이 나서 조선을 먼저 공격했어요. 왜냐하면 바다로 통해서 가는 것보다 조선을 통해서 명나라를 공격하는 것이 쉬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군이 쳐들어 올 것을 준비하지 못한 조선은 20일 만에 한양을 뺏기고 한 달 만에 평양까지 뺏겼어요. 조선의 왕(선조)은 백성들을 버리고 명나라로 갈 생각을 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은 1592년부터 1597년까지 7년 동안 바다에서 싸워 23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끌어 우리나라를 구해 내셨어요.

이순신 장군은 왜군이 쳐들어 올 것을 미리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의 지혜와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거북선에 잘 나타나 있어요. 거북선에는 용머리가 있고 꼭 거북이처럼 생겼어요. 삼 층짜리 배로 윗부분을 철판으로 덮었고 많은 철심을 박았어요. 이 층에서 대포를 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 배는 안에서는 밖을 볼 수 있고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군사들은 많이 다치지 않고 싸울 수 있었고 많은 왜의 배와 군사를 무찌를 수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크게 이긴 세 번의 전투 중에서 한산도 대첩은 학익진 전법을 썼어요. 이 전법은 배들을 일렬로 세워서 적을 유인하고 다시 학의 날개처럼 퍼져 적을 포위하는 전법이에요. 명량 대첩은 13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왜군의 배를 격파한 유명한 전투예요. 노량 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예요. 이 전투에서 왜로 도망가는 배들을 끝까지 쫓아가던 이순신 장군은 왜군들이 쏜 총에 맞아 배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한 군사한테 얘기했어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왜 이순신 장군은 본인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장군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 군사들이 듣게 되면 용기를 잃고 너무 슬퍼서 끝까지 용감하게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슬펐어요. 총에 맞고 죽게 되면 너무 무섭고 아프고 가족도 보고 싶어 아무 생각도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장군님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은 자기의 목숨보다 나라와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한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장군이었어요. 백성들이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니까 왕과 높은 신하들이 이순신 장군을 질투하여 잘못을 만들어 감옥에 보내고 장군이라는 이름도 빼앗았어요. 조선은 일본에게 크게 지고 왕은 다시 이순신 장군을 불렀을 때도 장군은 다시 나라와 백성을 위해 싸웠어요. 저 같으면 너무 화가 나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가족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저는 저한테 못되게 구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지내고 싶지 않고 저에게 친절한 사람들만 좋아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그 사람들이 자신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고 다시 전쟁터로 나갔어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에도 잊지 않고 매일 했던 것은 일기를 쓴 것이었





어요. 그것이 바로 유명한 난중일기예요. 난중일기에는 그 때의 날씨가 어땠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그리고 전쟁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자세히 써져 있고 장군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난중일기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107번이나 나온다니 어머니를 얼마나 걱정하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장군이 어머니를 뵈러갔을 때 흰머리를 뽑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흰머리가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아들을 볼 때 이렇게 늙고 힘들어 보이면 속상해 하실까봐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저는 슬프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우는데 엄마가 그때마다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버리며 끝까지 용감하게 싸웠고 거북선을 만든 지혜로운 분이예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장군님의 마음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한국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장군님처럼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할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저도 우리나라 한국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사람이냐고 물어보는 미국 친구들한테 자랑스러운 한국사람이라고 이야기 하고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이순신 장군과 같은 훌륭한 분들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왔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다음에 한국에 가면 광화문에 가서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꼭 보고 싶어요.



한산 은상

충효의 실천을 보여주신 이순신 장군

조 아 라

Ara Cho

임마누엘 한국학교 7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요즘엔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전쟁도 잘 일어나지 않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많은 전쟁이 일어났고 그런 전쟁들로 인해 가족을 잃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며 ‘충효의 정신’을 일생에 담은 인물로 1545년에 태어나 한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명으로 7년 동안이나 계속된 임진왜란에서 일본의 침략을 막는데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충효’란 군왕을 성심으로 받들고 부모를 지성으로 모시는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덕목으로 충성과 효도를 함께 이르는 말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32살의 늦은 나이에 무과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부에 아는 사람도 없고 부탁을 하러 다니지도 않아 오랫동안 임용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딱한 사정을 보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순신 장군님은 ‘대장부 세상에 태어나 나라에서 써주면 죽을힘을 다하여 충성할 것이요, 써주지 않으면 밭을 갈며 살아도 그만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충성심은 많은 전쟁들을 치르는 과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잔인하고 욕심 많은 우두머리를 앞세워 왜군이 우리 땅으로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님은 오직



나라를 구하고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굳은 마음 하나로 겁에 질려 싸움을 피하는 다른 장수들과는 달리 지혜롭고 용감하게 싸워 길고 참혹한 전쟁 동안 한번도 지지 않고 싸울 때 마다 이겨 찬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를 보면 전쟁 중 불타고 부서지고 남은 배 12척, 9명의 장교와 그보다 적은 6명의 병사로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우라는 명에 수군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이순신 장군님은 ‘지금 신에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면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수군을 폐지하면 적이 바라는 바로, 적은 호남을 거쳐 쉽게 한강까지 진격할 것입니다. 오직 그것이 두려울 뿐입니다. 비록 전선이 적으나 신이 아직 살아 있으므로 감히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순신 장군님은 남은 12척의 배로 왜군을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이렇듯 이순신 장군님은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결국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불리한 상황이 되고 강등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 이상 나쁜 일을 당하여도 항상 옳은 일에 앞장셨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난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인한 성격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님의 일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남다른 용기를 지녔던 이순신 장군님은 몇 번이고 일본에 대항하셨고 그때마다 승리를 거두어 나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용기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님은 나라에 대한 충성심만큼 책임감도 강하신분이셨습니다. 나라가 이순신 장군님께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불리한 싸움에서도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를 두고 맹세하매 고기와 용이 감동하고 산을 가리켜 맹세하매 풀과 나무도 안다.’라는 말에서 이순신 장군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으며 그 책임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충성심과 함께 이순신 장군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존경스러운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효성입니다. 전쟁의 하루하루에 대한 기록, 나라를 걱정하는 애국심과 함께 팔순 노모의 안위를 염려하는 마음이 잘 드러난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를 보면 그런 깊은 효성에 대해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요즘엔 인터넷도 많이 발달하였고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다른 사람들과 연락할 수 있지만 과연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사람들 중에 부모님께 수시로 안부 연락을 묻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의 안부를 알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심지어 전쟁이 난무하던 그 시대에 이순신 장군님은 항상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역시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에 기록된 ‘어머니는 곧 하늘이시다’ 라는 뜻의 天只 (천지)라는 문장을 통해 이순신 장군님의 해박한 학문적 깊이와 함께 지극한 효성을 잘 나타낸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님이 죽음 직전 옥문에서 풀려나 백의 종군길에 고향 아산에 들렀을 때 82세 노모께서 아들을 하루라도 앞당겨 보고 싶어 여수 고음천을 떠나 뱃길로 아산을 올라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거친 풍랑을 이기지 못하시고 배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서는 노모가 돌아가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장례조차 치루지 못하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에 충성을 다하려 했건만 죄가 이미 이르렀고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싶었건만 어버이마저 가버리셨네 어찌하랴,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있을까. 어서 죽느니만 못하구나.’ 하고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봤을 때 이순신 장군님께서서는 혼란한 전쟁 중에도 노모를 생각할 만큼 효심이 깊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본 이순신 장군님의 업적과 일생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곳입니다. 또한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빠르게 연락을 할 수 있는 인터넷이 매우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이 빠르고 편하게 바뀌는 반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무관심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순신 장군님의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책임감,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심, 부모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특히 효의정신에 제일 본받을만한 훌륭한 인물임을 기억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는 마음가짐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이 글을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산 은상

역사가 증명한 진정한 충성

주 민 영

Elizabeth Joo

열린문 한국학교 8학년

워싱턴지역협의회

저는 한국 역사를 배울 때 이순신 장군은 나라에 충성한 인물로 배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한국에 어떻게 충성을 하였나요? 어떻게 한국의 영웅이 되었지요? 한국 역사를 배운 사람들은 벌써 이 대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충성스러운 행동과 삶에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명한 사실이 저에게는 별로 감동으로 와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2017년 이 세상과 나의 가족, 나의 친구를 돌아보았습니다.

지금 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저와 항상 함께 하면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주고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한테는 그것이 “충성”의 한 의미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끝까지 믿고 지지한다는 것.

이순신 장군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보면서 저는 제 남동생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미식축구 팀에 대해 종종 보이는 일종의 “집착”이 생각났습니다. 제 동생은 REDSKINS의 열성적인 팬입니다. 그 팀의 경기는 밤새도록 보며 선수들과 팀의 각종 기록들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 팀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라

고 생각하며 저의 의견을 이야기 하지만 동생은 그런 의견들을 무시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팀을 지지하고 역성을 드는 “팬”입니다. 이것이 이순신 장군과 그의 나라 조선의 관계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순신 장군이 살고 있던 그 때의 조선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자신을 제대로 인정해 주지도 않는 나라에 헌신적으로 죽음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팬”이었습니다. 나라가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을 때에도 자신은 일본을 패배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전쟁 중의 모든 것이 어려운 시기에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큰 책임을 떠맡았을 때 그 무거운 짐은 이순신 장군에게 더 큰 결심을 하게하고 더 큰 힘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저는 그 나라가 정말 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할 때 이순신 장군과 같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미식축구 코치가 혹독한 훈련과 따뜻한 보살핌으로 선수들을 키우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군대를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빼어난 리더십이었습니다. 심지어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조차도 이런 그분의 카리스마에 존경심과 신뢰를 갖게 되었고 사기를 높여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리더십은 사랑이 없으면 제대로 발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 농구팀에서 운동하고 있는데 경기를 할 때 종종 벤치에서 경기를 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격려하는 아빠들을 봅니다.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그런 아빠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아빠들은 딸들, 아들들이 조금 더 힘을 내어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경기를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이 되도록, 자기 자녀들이 본인들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조금은 엄하고 힘들게 훈련시키는 것임을 자녀들인 저희는 압니다. 이순신 장군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기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조금만 더 노력하여 확실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격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서 나온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더 나은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힘을 쏟는 것이 바로 충성이 아닐까요.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 거북선을 만들었습니다. 거북선을 만들 그 때에는 모든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맡겨 놓고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도 벼슬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이순신 장군을 도와주지 않았고 또한 비록 마음이 있어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자기를 믿고 따라주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생각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물중 하나가 거북선입니다. 그 거북선도 역시 충성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제가 그 시절에 살면서 이순신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한국의 역사에서 거북선은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속상한 부분입니다. 저는 임진왜란이라는 전쟁과 이순신 장군 때의 역사를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이순신 장군이었다면 난 한국을 떠났을 거야……’라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너무 충성스러워서 자신의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용감하고 용기 있게 살아간 것은 이순신 장군이 타고난 자질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에 용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순신은 지성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기에 열세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항하여 많은 독창적인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을 버린 나라가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하였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영웅을 돕기 위해 따로 시간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영웅들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옆의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며 끝까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영웅들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다른 생각을 하며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서 ‘오, 정말 용감하고,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느끼게 된 부분입니다. 진정한 영웅은 나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로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였고 한국역사에 있어서 진정한 영웅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충성심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 옆의 사람들, 자기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영웅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임금을 잘 섬기는 것만이 충성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충성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힘든것을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시간 속에서만 충성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충성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자들을 지지하면서 서로 안 좋은 말과 행동으로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도 충성의 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들이 바르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위해 싸우는 것 또한 충성의 한 모습입니다. 다만 그 길이 이순신 장군이 역사에서 평가받아 충성한 사람으로 증명되었듯이 지금의 우리들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바르게 살아가야한다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앞으로 우리 모두 바른 판단에서 나오는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한산 동상

이순신 장군의 충효 정신

권 민 호

Minho Kwon

다솜 한국학교 7학년

북가주지역협의회

충효 사상, 국가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이 당연히 행해야 하는 도덕이며 인간이 참된 인간, 바른 인간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본 도리이다. 충효의 의미는 동양 문화에서 대대로 물려받고 이어져 내려온 하나의 전통 사상으로 자리 잡아 왔다. 이렇게 중요한 충효 사상이 앞으로도 잘 이어져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순신 장군에 관해 공부하면서 장군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국난을 이겨내어 나라를 구하고 어머니께 효도한 분으로 충효 사상을 몸소 실천하신 위대한 장군임을 알게 되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자료를 공부하면서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처하여도 그때마다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는 자기희생과 자기 수련을 통해 최선을 다하는 장군의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충의 사상의 남다른 점은 두 번의 백의종군을 겪은 일을 통해 알 수 있다. 백의종군이란 조선 시대에 무관이 모든 관직과 벼슬이 없는 상태에서 군대에 다시 참가하는 것을 이른다.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4년 전 1588년에 두만강 북쪽 녹둔도에 쳐들어갔던 여진족을 무찌르기 위한 전투에 백의종군 하였고, 이후 임진왜란 기

간에 또다시 백의종군하였다. 장군은 일본과의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남해에서 일본 해군을 제압하여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는 업적을 이루었지만, 원군의 모함으로 직책은 박탈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으며 심한 고문을 당하였고 결국 두 번째 백의종군을 하게 되었다. 나는 이 부분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섭섭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임금에게 아무런 원망이나 섭섭함을 내색하지 않고 인내로 견디며 나라와 백성들을 살리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자기를 희생하고 나라를 위해 신념을 다하였다.

이순신 장군의 충 사상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예들이 있다. 이순신 장군이 충청도 병영에서 복무하는 동안 그의 방안에는 옷과 이부자리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고향에 다녀올 일이 있어 배급받는 음식이 남으면 음식을 나누어주는 부하에서 돌려주었다고 한다. 오동나무 사건도 있는데 이순신 장군의 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이 어느 날 심부름꾼을 시켜 객사 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서 거문고를 만들려고 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이를 본 장군은 “이것은 나라의 물건이다. 사사롭게 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심은 지 오래된 나무인데 하루아침에 베어 버릴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심부름꾼을 돌려보냈다고 한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이순신 장군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했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나라의 물건,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아낄 줄 아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최순실 비선 실세 사건을 보면, 그들은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나라의 돈을 포함한 모든 것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하고 조작한 일이 있었다. 이들은 말로는 부정부패를 없앤다고 하고 나라를 위한 일이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정부패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저지르고 있었다. 이런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검소하고 욕심 없고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청렴결백한 이순신의 충 사상은 큰 가르침이 되어야 하고, 충 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감동을 받은 또 다른 이순신 장군의 정신은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사랑과 공경의 정신을 실천하는 효 사상이다. 임진왜란 중에 이순신 장군이 기록한 난중일기에 보면 어머니에 관한 언급이 107회나 나오고 어머니를 하늘로 표현한 ‘천지’라고 쓰면서 어머니에 대한 지극한 효를 보여주었다. 장군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는데 홀로 남은 어머니에 대하여 전쟁 중이라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지 못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이순신 장군은 부모만 받드는 것만을 효로 한정한 것이 아니라, 장군의 형의 자식들인 4명의 조카에 대한 사랑도 컸다.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장군의 넉넉한 마음을 알 수 있고 이도 효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형제 자매들을 잘 보살피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효의 한 부분임을 알고 실천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정읍 현감으로 부임할 때 식구가 많다고 옥을 먹고 비방을 받게 되었을 때도 “내가 차라리 식구를 많이 데리고 온 죄를 입는 한이 있어도 이 의지할 곳 없는 것들을 돌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식들보다도 조카들을 더 챙겼다. 난중일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순신은 전쟁하는 칠 년 동안 조카와 자식들을 옆에 두고 고향과 어머님과 집안 소식을 교대로 전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들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닐 때, 날씨가 궂으면 걱정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잘못하면 엄격하게 야단을 치고, 부인의 생활과 건강을 걱정하였다. 이런 모습은 보통 아버지들의 모습이다. 이순신 장군은 용맹한 장군이기에 앞서 자상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평범한 생활 속에서 효 사상을 실천하였던 것이다.

무엇보다 이순신 장군의 효사상이 드러나는 예는 두 번째 백의종군하는 사건일 때이다. 심한 고문과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백의종군까지 하게 된 시기에 어머니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 ‘마음이 매우 언짢아서 취한 듯 미친 듯 마음을 건잡을 수가 없으니 이 무슨 징조일까.’라고 적었는데 분명 어떤 불안한 예감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결국, 어머니의 죽음을 전해 듣고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상황

에 한탄하며 죄인 같은 심정을 일기에 적었다. 그 당시 죄인의 몸인 데다가 한창 전쟁으로 나라가 위급한 상황이라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순신은 자신을 죄인처럼 생각하며 효심을 실천했다.

충무공 이순신의 충효 사상의 기본정신은 자신과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남의 행복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데 있다. 즉 이순신의 정신은 나라와 백성을 귀하게 여기며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은 몹시 불리하게 되고, 억울하게 속임수를 당하거나 그 이상 나쁘게 되어도 항상 옳은 일에 앞장섰다. 이러한 이순신의 정의감, 책임감 그리고 불굴의 용기는 그의 충 사상을 잘 보여주며 부모와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하여 보살피는 모습에서 그의 효 사상을 더욱 드러나게 한다.

나는 비록 지금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충효의 모습을 지닌 이순신 장군의 후손으로서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며 효도하는 멋진 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해본다. 정의감, 책임감 그리고 불굴의 용기가 있었다.





한산 동상

불패신화는 신화가 아닌 이순신 장군의 지략이다!

이 루 리

Ruhri Lee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 8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제가 5학년 때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훌륭한 장군이구나 하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영화 “명량”을 보고나서 너무나 놀랍고 이순신 장군을 왜 훌륭하다고 말하는지 조금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부터 저는 이순신 장군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얼마나 공경하는지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정말 강하고 무엇이든 잘하고 완벽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순신 장군은 몸도 약하고 무과 시험에서 달리는 말에서 떨어지고 활도 잘 못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강한 정신력과 준비성 그리고 전쟁이 나가기 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32전 32승이라는 불패신화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왜군을 물리치는 것만 생각하던 이순신은 왕의 질투에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는 역울한 일이 있었지만 거기게 마음 상하지 않고 다시 나라를 지킬 수 있을 시기가 왔을 때 죽음을 각오 하고 전쟁을 준비 하였습니다. 특히 명량 대첩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감옥에 있을 때 원균 장군이 전쟁에서 대패해서 거북선이 12척 밖에 남지 않았지만 바다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을 먹습니다. 왕이 이 소식을 듣고 12척의 배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바다를 버리고 육지에 와서 나라

를 지키라고 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바다를 버리면 왜군들에게 대문을 열어주는 격이라고 생각해서 바다를 결코 포기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미천한 저는 아직 살아 있고,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이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웁니다. 수군을 모으고 무기를 준비하고 이길 수 있는 지형으로 유인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웁니다. 그러나 수군들은 왜군들이 몰려오자 무서워서 나와서 싸우지 않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살 것 이고, 살기를 원하며 죽을 것이다.” 라며 제일 먼저 나와서 왜군들을 물리칩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토록 강한 정신력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수군들은 모두 도망가고 우리나라는 왜군에게 다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수군들은 용기를 내서 이순신 장군과 장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신적인 능력으로 이긴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순신 장군은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는 지략이 있습니다. 또한 거북선이라는 강한 배를 160척으로도 원균 장군은 이기지 못했지만 이순신 장군은 12척으로도 133척의 왜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지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지략 중에 정말 놀라운 것은 12척의 배를 10배가 넘게 많아 보이도록 하는 방법 이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일자진이라는 방법으로 울돌목을 막고 그 뒤에는 고기잡이 배들을 띄워놓고 거북선에서 유황을 내 뿜으니 왜군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수군으로 착각하고 겁먹고 도망가는 대목은 통쾌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지만 전쟁을 나가면 몇 년씩이나 부모님을 뵈 수 없고 걱정하시는 마음으로 늘 불효자라고 생각하는 이순신 장군의 모습은 저를 반성하게 합니다. 저는 학교 숙제나 시험이 있는 날이면 항상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엄마한테 짜증을 많이 내는데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도 불효자라고 생각하시다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장군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운 좋은 기회였습니다.





한산 동상

사랑으로 한 선택

주 민 하

Edward Joo

열린문 한국학교 8학년

워싱턴지역지역협의회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위대함을 가지고 태어난 천재이고, 어떤 사람은 살면서 그 위대함을 이루어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위대함을 자신의 운으로 받았다” 이 말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음악가 모차르트는 위대함을 가지고 태어난 천재였고 백범 김구선생님은 그 위대함을 스스로 이뤄내셨고, 유리세스그랜트는 그 위대함을 운으로 받아낸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도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어떻게 위대하게 되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위대하게 되었는지보다는 ‘왜 위대한지’입니다.

이순신을 지금의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다’고 평가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분이 전쟁에서 패한 적이 없어서인가요? 아니면 그분의 독창성 때문인가요? 이 대답들이 다 맞는 것인데도 아직도 더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나라에 충성심을 보여주었으며, 하나뿐인 목숨을 내 놓았습니까?

처음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자신의 나라 조선을 침략자들로부터 구해냈고, 목숨을 잃었다는 것에는 존경심을 갖게 되었지만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한국사람들의 존경심이 이렇게 큰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순신 장군의 희생이 얼마나 깊은 사랑에서 나왔는지를 한국사람들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떠한 희생을 얼마나 했을까?’라는 물음을 해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인생은 거의 다 조선의 군대생활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서른세 살의 늦은 나이에 군대에 합류했는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이 서른다섯 살이었다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 있고 좋은 시기를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조선이란 사회에서 양반이었던 이순신이 정부관료가 될 수 있었는데도 양반이라면 하지 않으려고 피하는 어려운 군대를 택한 것은 이미 자신의 평안은 생각하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부정부패로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관료가 되는 것 보다 군대에서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나라를 지켜내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때문에 조선의 왕 선조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도 한 때는 강한 힘을 가졌던 때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선조는 중국에 머리를 숙인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하는 국민들을 지키는 것보다 자신의 ‘왕자리’만을 걱정하는 자격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 때 일본은 힘을 가진 지도자가 하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가지고 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 덕분에 이겼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면 인생이 훨씬 더 화려했을 것이고, 지금도 더 많은 세계인들에게 환호 받는 위인으로 평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Nelson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군이 될 수도 있었는데 그의 운명 때문에 조선이라는 아주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이랑 비교하면 중요하지 않은 나라. 천천히 사라져가도 모를 실패하고 있는 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나라 조선. 바로 그 나라 조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들었고, 그리곤 ‘왜 이 사람에 대해 배울까?’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저 ‘나



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다른 장군들과 같은 장군일 뿐인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들과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으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어 실천하였습니다. 미국의 해군사관학교에서는 영국의 Nelson과 함께 이순신 장군에 대해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듯 작고 힘없던 나라, 중요하지 않던 나라에서 이순신 장군과 같은 후대가 배워야 할 영웅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이순신이 나라에 충성하도록 하였을까?", "조선은 이순신에게 어떻게 충성심을 얻어낼 수 있었을까?" 충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특성이 아니고, 누구한테 배우는 부분도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충성은 바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하면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순신은 부모님을 무척 존경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그런 마음은 태어나고 자라면서 저절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을 아주 조금 되갚는 표현이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은 조선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부모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그렇게도 맹렬하게 조선을 침범한 일본과 싸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부모님을 약탈하고 죽이는 적을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면서 보고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순신이 조선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효도이고 또한 충성의 모습이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조선 정부를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조선의 왕을 위해 싸운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했던 부모를 위해 싸운 것입니다. 이순신은 자기를 아는 사람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한 사람 쇼군의 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싸웠기 때문에 이순신에게 졌습니다. 즉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지금은 역사가 이순신 장군을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이제 영원히 자기 나라에 대한 충성과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의 성공과 실패의 사실을 통해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이순신 장군을 보면서 우리는 그 분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또 다른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 역사 수업시간에 알게 된 W.M.Lewis는 ‘인생의 아쉬움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아가면서 느낀 가장 큰 아쉬움은 이순신 장군이 자신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분이 만약 조금 더 일찍 군대에서 힘을 갖기 시작했다면, 혹은 중간에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만 않았었다면 임진왜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고 혹은 그렇게 큰 희생을 치루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장군 스스로가 야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면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들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도 해 봅니다.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많은 장군들 중 한 분’이라는 첫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 선택으로 할 수만은 없는 것임을 압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상상도 못할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한국 사람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시리즈 해리포터에서도 사랑이 가장 강한 마술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끔찍한 곳이 되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의 사랑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사랑은 저 자신도 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저의 나라와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영웅으로 태어나지 않아도, 천재로 태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나 이순신 장군과 같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옥포 금상

이순신 장군 만세!

유 하 늘

Emily Haneul Yoo
애틀랜타 한국학교 4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이순신은 한국에서 유명하고 멋진 장군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을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는데 노랑 앞바다에서 끝까지 싸우다 죽어서 성웅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로서 왜군을 바다에서 크게 이겼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세계 최초로 철갑선인 거북선을 만들었어요. 괴물처럼 무섭게 만들어서 왜군이 무서워서 도망가게 했어요. 왜군이 거북선에 뛰어 올라 오려고 할 때 거북선의 뾰족한 바늘들이 발을 찔러 물에 떨어지게 했어요. 그리고 철로 만들어서 왜군들이 총을 쏘도 많이 안 무너져서 이길 수 있었어요.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왜군을 물리칠 수 있게 도와 줬어요. 한산 앞바다에서도 학익진으로 왜군을 또 크게 이겼어요. 부하들이 왜군을 무서워 할 때 이순신 장군은 죽으려 하면 살겠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고 말해서 부하들한테 큰 용기를 주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용감하게 싸우다 왜군의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왜군이 자기가 죽은 것을 알면 기뻐하고 이길 까봐 자기의 죽음을 남한테 말하지 말라고 부하들한테 말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매일 매일 일기를 썼어요. 왜군이 쳐들어 올 것을 알고 미리 계획하고 그것을 일기로 써놨어요. 이순신 장군이 죽은 후에 그 일기는 매우 유명해 졌어요. 그 일기를 ‘난중일기’ 라고 해요.

한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한국을 도와 준 이순신 장군은 꼭 매년 기억해줘야 할 것 같아요. 한국을 위해 많은 것을 한 이순신 장군한테 만세!!





목포 은상

나라와 사람을 사랑한 이순신

김 세 현

Sehyun Kim

델라웨어 한국학교 4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어요. 조선과 왜가 7년 동안 싸웠어요. 이순신 장군은 왜와 23번 싸워서 23번 모두 이겼어요. 그 중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해전이 유명해요.

한국학교에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을 읽고,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보았어요. 한산도 대첩에서 이순신 장군은 왜군을 한산도 앞 좁은 바다로 유인하고, 섬 뒤에 숨어있던 조선군이 공격하게 했어요. 내레이터가 이것을 근대식 해전이라고 말했어요. 바다에서도 전략을 짜서 싸웠다는 뜻이에요.

영화 명량을 보았어요. 영화가 시작했을 때, 이순신 장군이 고문을 당하는 것을 보고 무서웠어요.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모함해서 벌을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임금님에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하려고 노력했는데 벌을 줬으니까요. 그래도 이순신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나라를 지키지 못해 임금이 피란을 가고 백성들이 고통 받는다고 미안해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명량 해전에서 쳐들어오는 왜군이 너무 많아 무서워하는 군사들에게 이순신

장군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यो,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서로 힘을 합해 최선을 다하면 이긴다는 뜻인 것 같아요. 12척의 배와 겁에 질린 군사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친 것은 기적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장군은 한 사람이 길목을 잘 지키면 천명의 적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정말로 12척의 배로 명량 앞바다를 지켜 한양으로 올라가는 왜의 사기를 무너뜨렸어요.

만약 제가 전쟁터에 있다면 어머니와 가족이 그립고, 가족이 다칠까 봐 걱정되고 긴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순신 장군은 계속 싸웠어요. 백성과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 싸울 수 있었어요. 실제로 장군은 전라좌수사로 부임해서 전쟁을 준비하느라 바빠서 아픈 아내도 돌보지 못하고 가까이 계시는 어머니도 3년이나 찾아가지 못했어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7년 동안 꼬박꼬박 일기를 썼어요. ‘난중일기’라고 불러요. 저는 지금도 매일 일기 쓰는 것이 어려운데, 전쟁 중에도 매일 일기를 썼다니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그 때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장군이 부지런히 일기를 썼기 때문이에요. 난중일기는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해서 아산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어요. 여름방학 때 한국에 가서 난중일기도 보고, 한산도에 가서 활쏘기 연습한 장소도 꼭 볼 거예요.

노량 해전은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이곳에서 이순신 장군이 왜군의 조총에 맞아 전사했어요. 장군은 부하에게 방패로 자신을 가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리더가 죽으면 부하들이 힘이 빠져 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게임에서도 리더가 끝까지 살아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싸움에 졌다면 일본 밑에서 나라 없이 살고 일본말을 배워야 했을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노예가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에게 너무 감사해요. 이순신 장군의 나라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용기를 본받고 싶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미국에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 사람을 돕고 싶어요.



옥포 은상

내가 배운 이순신 장군

이 마 리 벨

Maribelle Lee

하상 한국학교 4학년

중서부지역협의회

나는 이순신 장군을 오랜 옛날에 한국을 구한 유명한 장군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글로 쓰기 위해 부모님과 책을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은 일본과 바다에서 전쟁을 하면서 많은 승리를 만든 용감한 장군일 뿐 아니라,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싶은 훌륭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배운 장군 이야기와 내가 알게 된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점에 대해 쓰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은 사랑이 많고, 노력하며, 나라를 많이 사랑한 용감한 사람이었다.

먼저, 이순신 장군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다. 전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병을 얻게 된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아준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전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열심히 도와준 것 같다. 이런 도움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순신 장군은 노력하는 사람이다. 시험에서 떨어진 뒤에도 계속 노력을 해서 군인이 되었다. 전쟁이 없을 때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거북선을 만들고

앞으로 일어날 전쟁을 준비했다. 거북선은 배 위를 철로 만든 지붕과 일본 군인이 올라갈 수 없는 바늘로 덮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 힘들었던 훌륭한 배이다. 거북선은 모든 방향에서 대포를 쏠 수 있는 과학적인 배이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일본 군인이 겁을 내는 장군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매일매일 힘들어도 일기를 쓴 부지런한 사람이었다. 전쟁에 나가서도 이순신 장군은 일기를 썼다. 그 일기에는 나라를 지키는 일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시려고 노력하고, 부하들과 어머니를 사랑했던 마음을 알 수 있다. 또, 힘들었던 많은 일들을 시로 써서 표현하기도 했다. 그 일기와 시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순신 장군은 나라를 많이 사랑했다. 왕이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보낸 후에도 다시 돌아와 군인이 되어 나라를 구했다. 이순신 장군은 왕을 미워하지 않고 다시 전쟁에 나가서 일본군인과 싸우고 이기게 되었다. 전쟁에서는 일본군인을 무서워하지 않고 바다에서의 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일본이 전쟁을 그만두고 쫓겨 가게 만들었다.

이순신 장군은 용감한 사람이다. 명량에서는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배를 물리쳤다고 한다. 다른 군인이었다면 미리 겁을 먹고 도망을 갔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일본배가 훨씬 많다는 것을 미리 알고도, 지혜를 써서 바닷물의 흐름을 이용하여 일본 군인을 물리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이런 점에서 이순신 장군은 작은 돌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이런 훌륭한 점들이 하나 하나 모여서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한 결과인 것 같다. 나도 이런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점들을 본받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공부하고 노력하며, 힘든 때에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고 싶다.





옥포 동상

이순신 장군과 나의 무한도전

서 예 준

Yejun Suh

에덴스한인침례교회 한국학교 4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나는 한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나는 그 중 위대한 유산을 재미있게 보았다. 위대한 유산은 연예인들이 팀을 지어 역사에 관한 힙합을 만드는 것이다. 거기에서 이순신을 주제로 힙합노래를 만든 팀이 눈에 띄었다. 나는 어렸을 때 부터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 프로그램을 보고 이순신에 대하여 더 알고 싶어졌다. 그리고 나는 이 글짓기를 준비하면서 이순신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책을 읽고, 유튜브로 설민석의 한국사 강의를 들었다. 나는 책을 읽고 강의를 듣는 동안 이순신 장군이 너무 좋아졌다. 우리나라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이순신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어렸을 때, 이순신은 전쟁놀이를 좋아했다. 이순신은 싸움도 잘 했지만, 학문도 잘했다. 이순신은 무과 시험에서 말타기를 하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지만, 버드나무로 다리를 묶고 다시 말을 타고 달렸다. 그러나 말에서 떨어진 이유로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고 몇 년 후 또 다시 시험을 쳐서 무관이 되었다.

그런데 장군이 되고 보니 모든 게 엉망이었다. 그래서 이순신은 온 힘을 다해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모든 것을 점검하고 고쳤다. 군사들은 조금씩 달라졌

다. 이순신이 전라도 남쪽 바다를 지키고 있을 때, 군사들이 고을사람들의 오동나무를 베고 있는 것을 보았다. 높은 사람이 거문고를 만들기 위해 베어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순신은 오동나무는 나라의 재산이라며 군사들을 혼내고 돌려보냈다. 이순신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했다.

이순신은 억울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다. 이순신이 전투들을 많이 이겨서 신하들이 질투를 했다. 그래서 이순신은 못된 신하들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혀야 했다. 하지만 이순신은 감옥에서도 조용히 책을 읽으며 나라를 생각했다.

전쟁이 났을 때, 이순신은 지혜를 써서 훌륭한 전략을 짰다. 이순신은 학익진 등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해서 적들을 쳐부수었다. 이순신은 많은 전투들을 싸웠는데, 내가 제일 기억하는 전투는 명량해전이다. 그때 이순신은 권율 장군이 크게 패배해서 12척의 배 밖에 없었다. 반면에 왜군은 300척이 넘는 배가 있었다. 이순신은 명량(울돌목)의 좁고 험한 지형과, 썰물과 밀물의 때를 이용하여 전투를 이겼다. 명량의 빠르고 좁은 물살 속에서 왜군의 배가 공격해 오다가, 기다리던 이순신의 공격을 받았다. 그때 물살의 흐름이 바뀌었고, 왜군의 배가 서로 부딪치게 되며 엉망진창이 되었다. 왜군은 후퇴를 해야 했고, 이순신이 크게 승리했다.

이순신은 전투함을 만들었다. 그 전투함의 이름은 거북선이었다. 이순신은 거북선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만들었다. 거북선은 조선의 전투함인 판옥선에 장치들을 놓아 만들었다. 거북선의 등 쪽에 판을 놓고, 판 위에는 뾰족한 것들을 박아 놓았다. 그렇게 해서 왜군이 배 위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배 옆쪽에는 조선의 주요 무기인 화포를 장착해 놓아서 왜군의 배들을 공격했다. 거북의 머리에서는 연기가 나와서 적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순신이 만든 이 거북선은 왜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순신은 거북선 3척을 만들어서 임진왜란에 썼다. 나는 이순신이 지혜를 모아서 만든 거북선이 좋았다.

나는 이순신의 지혜가 제일 마음에 든다. 이순신은 전략을 짤 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지혜롭게 생각했다. 나는 이순신이 침착한 것이 좋다. 이순신은 감옥에 있었을 때도 침착했었다. 나는 이순신의 용감한 점을 닮고 싶다. 이순신은 전략을 짤 때, 전투에 나갈 때, 언제나 용감했다. 나는 이순신의 용기





를 본받아서 어려울 때마다 지혜롭고 용기 있게 행동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순신의 충성심이 마음에 든다. 이순신은 나라가 자신을 버렸을 때도 나라를 버리지 않았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은 총에 맞아 죽으면서도 나라를 생각하고,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며 세상을 떠났다.

나의 꿈은 로봇 공학자다. 나는 커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한국을 빛나게 하는 로봇 공학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나의 지식과 지혜와 용기를 내가 아니라, 이순신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싶다. 나는 전에는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순신에 관한 책을 읽고 나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생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순신이 전쟁 시기에 쓴 난중일기처럼, 로봇공학자가 되면 일기를 써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적을 것이다. 그러면 후손들이 그것을 읽고 로봇공학자가 옛날에 어땠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지구를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백 원짜리 동전에 이순신이 새겨져 있는 것과, 무한도전의 이순신 노래와, 내가 지금 이 글짓기를 쓰고 있는 것은 다 이순신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이순신을 닮고 싶다. 그리고 대한민국 후손들이 이순신을 기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순신처럼 지혜롭고 용기 있게 그 일을 해결하면 좋겠다. 이것이 이순신 장군과 나의 무한도전이다.



옥포 동상

임진왜란과 이순신

유 도 준

Dojun Yoo

에덴스 한국문화학교 3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나는 이순신이 어떻게 임진왜란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이순신의 인생을 쓸 거다.

이순신은 1545 년 음력 3 월 8 일 한성 건천동에서 태어났다. 이순신은 어렸을 때 전쟁 놀이를 좋아했다. 서당에 같이 다니던 류성룡과 친구였다. 21 세가 된 이순신은 보성 군수 방진의 딸과 결혼하였다. 그는 장수가 되고 싶었다. 장수가 되려면 무과시험을 통과해야한다. 첫 번째 시험에는 말에서 떨어져 발이 부러졌지만 옆에 있는 버들나무 껍질을 떼어 다리에 붙이고 시험을 끝까지 보기도 했다. 그리고 다시 도전하였다.

두번째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다. 나는 이순신에게서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배웠다.

4 년 후 이순신은 합격하자 동구비보라는 지역으로 갔다. 그쪽은 여진족이 많이 쳐들어오는 곳이다. 1583 년에는 여진족 우두머리를 잡았으나 큰 상은 받지 않았다.

43 세에는 함경도 두만강 부근의 녹둔도라는 곳을 책임졌다. 하지만 녹둔도



전투로 파직돼 백의종군을 하였다. 당시 조선의 임금인 선조는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 올 것으로 느꼈다. 그래서 장수를 찾다가 이순신을 전라좌수사로 시켰다. 이순신은 판옥선과 거북선을 만들어 전투를 준비하였다. 1545 년 일본군이 조총을 들고 쳐들어 왔다. 왕은 한성에서 의주까지 도망을 쳤다. 1592 년 4 월 27 일 일본군과 첫 싸움인 옥포 해전에서 이겼다. 1592 년 5 월 7 일 이순신은 합포에 적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합포 해전에서도 이기고 바로 다음 날 직전포 해전에서도 이겼다. 일본군이 뺏어간 물건들도 다시 찾아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해 이순신은 사천에서 싸우다가 총에 맞았지만 그 싸움도 이겼다. 새벽에 싸움을 한 울포 해전에서도 이겼다.

이순신은 일본군들이 싸움에 계속해서 지자 한산도로 간다고 전해 들었다. 일본군이 쳐들어오자 이순신은 도망가는 척을 하고 쫓아 오자 이순신은 돌아서 학익진을 펼쳤다.

그게 바로 한산도 대첩이다. 부산포 해전에서는 100 척도 안 되는 배로 일본군의 배 500 여척을 발견하여 싸웠다. 이순신은 백성들을 돌산도라는 섬에서 농사를 짓게 했다.

이순신은 일본군의 배를 불태우기 전에 포로로 잡혀 배 안에 있던 조선 백성들을 구했다. 옥포 해전에서는 소녀 2 명을 구했고 당항포 해전에서는 여섯 명의 남녀를 구했다. 선조가 명나라에 도와달라고 하자 류성룡은 안된다고 하였다. 일본군이 갑자기 쳐들어오자 백성이 자기 고향을 지키기 위해 군사가 되어 싸우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스스로 군사가 된 백성들을 의병이라고 한다. 그들은 낮과 돌로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전쟁이 길어지자 병과 배고픔으로 죽은 병사들이 많았다.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일도 있었다. 왕과 신하들은 부산에 일본군들이 쳐들어 올 것이라는 말만 믿고 이순신에게 부산 앞바다로 출동하라고 하였다. 이순신은 그것이 속임수라고 했다. 이순신이 명령을 안듣자 왕과 신하들은 이순신을 백의종군으로 만들었다. 원균이라는 자는 이순신의 배와 식량을 다 가져갔다. 원균은 칠천량 해전에서 죽었다. 그래서 이순신은 다시 장군이 됐다. 이순신에게는 12 척의 배가 남아있었다. 그는 12 척의 배로 330 척을 부수고 일본군들을 이겼다. 이것이 그 유명한 명량해전이다. 일본 대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자 도

망가는 일본군들을 잡기 위해 이순신은 일본군을 쫓다가 노량이라는 곳에서 가슴에 조총을 맞고 죽었다. 1609 년 이순신은 충무공이라고 불렸고 나라에서는 1706 년에는 현충사를 지어 주었다. 이게 이순신의 인생이다.

이제는 이순신이 어떻게 임진왜란을 극복했는지를 쓸 거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을 철저한 준비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극복했다. 그 전에 울곡 이이라는 사람이 일본 사람들이 쳐들어 올 것이라고 하였다. 울곡 이이가 10 만 양병설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왕은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순신은 거북선과 판옥선이라는 배를 만들어 적이 쳐들어오기 전 준비를 하였다. 작전도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군사들과 함께 좋은 작전을 짜냈다. 미리 어느 곳으로 일본군들이 쳐들어 올 지 알고 준비하였다.

싸움을 하는 중에도 이순신은 난중일기를 쓰면서 싸움을 준비하였다. 그래서 해전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 이순신 장군이 말한 중요한 2 가지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와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는 것이다.

나의 우상은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은 12 척의 배로 아주 힘들게 일본을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이다. 내가 우상으로 선택한 이유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백성들은 의병이 되어 이순신과 함께 싸웠다.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군사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의 도움으로 임진왜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옥포 동상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

함 지 훈

Daniel Ham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 4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안녕하세요. 저는 9살 미국에서 태어난 함지훈입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을 처음 알았던 것은 2년 전쯤입니다. 엄마가 한국에서 저를 위해 사오신 역사책에서 읽었습니다. 솔직하게 그때는 거북선이라는 멋진 배만 알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순신 장군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깜작 놀란 이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똑똑한 과학자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옛날 조선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때는 컴퓨터도 없었고, 과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북선을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기만 합니다. 거북선은 몸통이 거북이 같아서 거북선이라고 했습니다. 거북선 위에는 높게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또 방패처럼 철판로 뾰족한 바늘을 지붕에 만들어 왜 군이 배 위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거북선의 입에선 대포와 불이 나왔습니다. 용머리에서 꼭 용이 불을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하는 일본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미안하지만, 그 모습을 상상하니 웃음이 나오고 우리 거북선이 자랑스러워 신이 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나 발명

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둘째는 이순신 장군이 너무나 똑똑하고 용감한 장군입니다.

13척으로 300척을 무찔렀다는 사실을 교육비디오를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은 수의 배로 그 많은 일본 배를 무찌르기 위해서 거북선과 우리나라 지형을 이용하였습니다. 일단 일본 배를 좁은 바다로 유인했습니다. 그 곳은 파도와 물살이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일본 배들이 좁은 곳에 모였을 때 거북선이 길을 막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물살이 바뀌어서 더 용감하게 왜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명량해전 입니다. 거북선도 최고이지만, 자연을 알고 이용했다는 것이 저를 흥분하게 했습니다. 장군은 매우 똑똑해서 이길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정말로 이순신 장군이 지금 시대에 태어났다면 노벨상을 받는 과학자나 발명가가 되지 않았을까요?

셋째로 놀라운 것은 장군이 나라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안타깝게도 왜군의 총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장군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몸을 방패로 가리라고 했습니다. 싸우고 있는 우리 군인과 왜군이 장군의 죽음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는 슬프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죽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무서운데, 죽는 순간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니까 진짜 우리나라의 영웅입니다.

일본은 우리 나라를 참 많이도 쳐들어 왔었습니다. 역사책을 읽다 보니 그 전쟁이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쟁에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생각도 하기 싫어요. 이순신 장군 덕분에 전쟁에서 이기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전쟁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이 더 오래오래 살았었다면 거북선을 더욱 발전시켜 우주선 같은 배를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거북선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과학적인 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에 가면 거북선을 꼭 보고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 무덤과 박물관에 가고 싶습니다.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이 자랑스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참 자랑스롭습니다.



수상소감 명랑 금상

주 하 늘

열린문 한국학교 10학년
워싱턴지역협의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집안을 이리저리 꺾충꺾충 뛰어다녔습니다. 상을 받을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않았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으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사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제가 아는 거라고는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신 분이라는 것과 거북선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글을 쓰기 위해 이순신 웹사이트를 통해 조사하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힘든 삶을 사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분의 신념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철저히 준비해서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중요한 교훈과 자신감을 얻을 기회와 상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상소감 명랑 은상

이 새 해

애틀랜타 한국학교 9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우선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상을 주신 심사위원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일생과 업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한산 은상

조 아 라

임마누엘 한국학교 7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안녕하세요?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아라입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공모전을 통해 은상을 받게 되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글짓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조사와 책도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아 정말 기뻐했습니다. 글을 쓰면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순신 장군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임마누엘 학교에 다니면서 많은 위인들을 배워왔지만 저는 이순신 장군님이 가장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효의 정신”과 나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왜적과 싸우신 위대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무공 이순신”을 통해서 이순신 장군님처럼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를 많이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수상소감 한산 은상

주 민 영

열린문 한국학교 8학년
워싱턴지역협의회

저는 이번 글쓰기를 하면서 충무공 이순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게 된 세 가지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과 힘들어도 버티며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충성을 보여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충성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도록 끝까지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 상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를 지도해 주신 한국학교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이 루 리

남부뉴저지통합 한국학교 8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안녕하세요, 저는 뉴저지통합한국학교 8학년 이루리입니다.

이순신 글쓰기 대회에서 동상을 받아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한국학교 선생님과 글쓰기에 도움을 주신 엄마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한글이 어려워서 글쓰기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와 이순신 장군을 더 잘 알게 되었고 교훈도 많이 얻었습니다.

처음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강하고, 힘세고, 완벽한 사람이라서 왜군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에서 떨어지고, 과거 시험도 자주 떨어지고, 몸도 허약했습니다.

이렇게 단점이 많은 분이지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계획을 잘 세웠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 준비를 잘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결단과 끈기를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한산 동상

주 민 하

열린문 한국학교 8학년
워싱턴지역협의회

이번에 제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글쓰기를 준비하면서 그 분의 삶과 성격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해 몇 개월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 배웠고 충무공이 얼마나 조선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과 같이 저도 함께 하는 사람들, 제가 사는 사회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에세이를 쓰고 또 이렇게 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저의 한국학교 선생님들과 부모님께 고마움을 느끼고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저도 누군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큰 상을 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유 하 늘

애틀란타 한국학교 4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처음에는 이순신 장군을 잘 모르고 이순신 장군 글짓기도 있는 줄도 몰랐는데 우리 애틀란타 한국학교 선생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갑자기 쓰기 시작한 거였어요. 아빠가 보여준 이순신 장군에 대한 드라마의 도움으로 글을 써서 보냈지요. 갑자기 쓴 글짓기여서 사람들 모두 제가 1등을 탈 줄 몰랐을 거예요. 저도 솔직히 3등도 못할 줄 알았어요. 상을 탄 사람들 이름이 나온 날 엄마가 내가 상을 받았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냥 3등을 한 줄 알아서 그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3등도 잘한 거니까 기뻐했지요. 그런데 내가 1등을 했다고 했을 때 저는 너무 기뻐서 계속 뛰어다니고 못 멈췄어요. 너무 행복했고 엄청 뿌듯했어요. 처음으로 한 건데 금상을 타서 너무 신기하고 마음이 기뻐서 터질 것 같았어요. 한산상은 아빠가 어렵다고 하지만 상을 못 타더라도 내년에도 또 하고 싶어요. 상을 못 탔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못 타더라도 또 다시 해보고 도전하면서 한글을 더 잘 쓰고, 더 잘 읽고,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글짓기덕분에 이순신 장군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미국 전체에 살고 있는 내 친구들보다 더 잘한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제 글을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상소감 옥포 은상

김 세 현

델라웨어 한국학교 4학년
동중부지역협의회

저는 델라웨어 한국학교 4학년 김세현입니다. 이순신 글짓기에서 은상을 받게 되어서 아주 기분이 좋아요. 한국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아라반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책을 읽어 주시고 다큐멘터리 리뷰도 많이 해주셨어요. 또 숙제로 생각해 볼 문제를 내어주셨어요. 누구보다 감사한 것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우리나라를 자유로운 나라로 이끌어 주셨고 제가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니깐요. 친척 형이 하는 게임 모바일 레전드에 이순신 장군이 캐릭터로 나와요. 게임에서도 거북선을 타고 오고 활을 잘 쏘아요. 얼마나 전술이 뛰어났으면 게임의 중요한 인물 중 하나이겠어요?

처음에는 토요일 아침에 한국학교 가는 것이 무척 힘들었는데 이제 글을 스스로 쓸 수 있게 되어서 재미있어요. 앞으로 한국과 미국, 두 나라에서 이순신 장군처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 곳 미국에서 저에게 우리말과 글을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 델라웨어 한국학교와 동중부지역협의회 선생님들께 감사드려요.



서 예 준

에덴스한인침례교회 한국학교 4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안녕하세요. 조지아 주 에덴스 한인침례교회 서예준입니다. 저는 이 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글쓰기를 하는 동안 이순신에 대하여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어 기쁘고 뿌듯합니다. 저도 이순신처럼 책을 좋아해서 이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순신이 소설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 있었던 실제 인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도 이순신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용기 있고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지구를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유 도 준

에텐스 한국문화학교 3학년
동남부지역협의회

나는 충무공 이순신 글짓기 대회에서 옥포상을 받은 유도준이다. 이렇게 큰 상을 받아 기분이 좋다. 내가 상을 받은 것은 그동안 한글을 가르쳐준 에텐스 한국문화학교와 에텐스 한인침례교회 선생님들 덕분이다. 그리고 미국에 와 있는 동안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신 부모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내가 충무공 이순신 글짓기대회에 참가한 이유는 이순신을 통해 나라사랑의 마음과 철저한 준비정신을 배우기 위해서이다. 나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부모님께서 사 주신 이순신에 관한 두 권의 책을 읽었고, 다큐멘터리 영상 자료들을 찾아보며 준비하였다.

이순신을 통해 배운 것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를 잘하여 나라를 구한 것이다.

나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우수한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순신이 철저한 준비정신으로 판옥선과 거북선을 만든 것처럼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많이 배우고, 실천하며 세상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핸드폰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도 한글을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많이 읽어 한글 실력을 키우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서는 처음으로 주최하게 된 ‘제 1회 충무공 이순신 글쓰기 대회’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지도해 주셨을 부모님들과 한국학교 선생님들의 수고를 익히 알고 있기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도 더욱 정확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받은 작품들, 특별히 수상한 학생들의 작품을 볼 때 관계자분들만 보기에 너무 아쉽고, 다음 해 글쓰기 대회에 참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수상작을 e-book 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작되는 이 책이 많이 읽혀지고, 내년에는 더 많은 학생들이 글쓰기 대회에 참여하여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나라사랑, 사람사랑, 효, 포기를 모르는 도전정신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편집 후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Inc. Washington D.C.
www.naks.org

